



충성대신보



▲ 정보통신학과 김대영 교수와 사관생도들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토의식·참여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하고 스마트한 초일류(超一流) 정예장교 육성

지난 2월 28일 창예 54기가 임관하고 3월이 되어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충성대에는 새로운 주인공들로 활기가 넘쳐흐르고 있다. 2019년 신학기의 시작과 더불어 학교는 55기·56기 사관생도를 국가가 요구하는 미래의 주역으로 양성하고자 2019년 학교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 학교는 「祖國·名譽·忠勇」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전승을 주도하며 군사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지닌 정예장교 양성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①미래 육군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혁신, ②특성화를 통한 학교 브랜드 가치 향상, ③존중

과 배려, 소통과 긍정의 병영문화 정착, ④대외협력을 통한 상생의 민군관계 발전이라는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4대 교육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4대 교육지침

- 1 생도 중심의 참여형 일반학교육
- 2 기본전투기술 함양을 위한 군사훈련
- 3 올바른 생도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 4 전투체력 구비를 위한 전투체육 강화

첫째, 생도 중심의 참여형 일반학 교육 생도들의 전공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과제 위주의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생도들의 자제적인 선행학습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자율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논리적·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아전과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전공학과별 현장학습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둘째, 기본전투기술 함양을 위한 군사훈련

생도들은 전투임무수행과 관련된 핵심과목 및 과제를 집중 숙달하고, 수준별 맞춤형 차별화된 교육방법으로 학습능력을 향상한다. 또한 학년별 차별화된 Learning & Teaching 기법을 활용하여 전투지휘·상황판단 능력 구비를 위한 전술토의식 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셋째, 올바른 생도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爲國獻身 軍人本分の 군인정신, 책임감, 열정, 사명감이 살아있는 생도상 구현을 위해 충성·애국의식, 전적지담사, 화랑 리더십체험 등을 활성화한다. 또한 성 관련 사고예방교육, 인권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등을 통해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함양된 올바른

사관생도 양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넷째, 전투체력 구비를 위한 전투체육 강화

정규수업에 태권도, 전투수영, 전투체력단련 등 전투체육관련 과목을 핵심과목으로 정하였고 아전과 연계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문화체육활동을 적극 시행한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주차별 통합 단체 뽀글음을 실시하고 학년별(3학년: 1급 이상, 4학년: 특급 이상) 체력단련 목표를 설정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체력단련을 시행하여 전투체력을 강화할 것이다.

2019년을 도약적 변혁의 원년으로 삼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 중인 학교는 학교의 근본인 정예장교 양성을 핵심 업무로 삼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강하고 스마트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미래 국방을 책임질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고 도약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주간 고성진



올해 첫 국기게양식은 국기에 대한 충성심과 명예심을 다지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상호간의 단결심을 다지며 지난 4월 1일에 시행됐다. 국기게양식 진행 중 학교장 및 주요직위자, 사관생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하사 김현석



지면안내

- 02 학교소식 | NICEM 연구교류협정 체결
- 03 학교소식 | 특수부사관출신세미나 개최
- 04 기획취재 | 만화가 윤태호
- 06 생도광장 | 추천명화·책소개·생도칼럼
- 07 독지투고 |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 09 오피니언 | 경북대 학교 총장 김상동
- 11 교양 | 건강상식·손에 잡히는 재테크
- 12 기타 | 학교 발전제 단소식·모집광고

군환경연구센터- 서울대 농생명 과학공동기원(NICEM)

최신기술 상호협력 및 공동개발

지난 4월 11일, 본교 소속으로 있고 군 유일의 환경전문연구기관인 군환경연구센터(센터장 대령 허남국)와 서울대 농생명과학 공동기원(원장 임정빈)이 서울대 농생명과학 공동기원에서 최신기술 상호협력 및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군환경연구센터는 다수의 군교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과 장병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환경을 줄이고 군내 환경여건을 크게 개선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다.

서울대 농생명과학 공동기원은 토양관련 민간 전문기관이며, 2016년 국가공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KOLAS) 숙련도 시험운영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자타공인 최고의 환경전문 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구교류협정 체결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양 연구소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각종 연구교류 사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 협력, ▶공동 연구 및 연구 인력의 교류, ▶학술·기술·연구정보의 상호이용 등 3가지 분야이다.

특히, 토양표준물질 개발기술 및 활용방법 공유와 협력확대는 군환경연구센터가 군내 유일한 전문분석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군환경연구센터장 허남국 대령은 “이번 업무협약은 두 센터가 상호이해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군에 특화된 환경전문지식과 경험이 서울대 농생명과학 공동기원의 최신기술력과 결합하는 모범적 업무협약으로 향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소령 방현욱



▲ 연구교류 협정에 참가한 고효욱 교수부장(좌측 5번째), 서울대 임정빈 교수(좌측 6번째), 허남국 군환경연구센터장(좌측 7번째) 등 주요직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교양성 및 신임장교 과정 교육 향상방안 토의

지난 4월 2일 교내 청운관 철기장군실에서 최영철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장교 양성 및 신임장교 과정 교육 향상방안’ 토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의는 육군3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학생군사학교, 육군보병학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①장교 양성과정 목표·중점과 연계한 공통과목 검토, ②신임장교 양성과정 교육의 연계성 검토, ③학군사관 후보생 전술교육 강화방안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토의 진행에 앞서 육군 교육사에서 집필 중인 교육훈련개념서 소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향후 우리군의 교육훈련을 교육과학에 근거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지침을 소개한 것이라서 뜻깊은 교육이 되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의에서 각학교별 교육목표 및 중점과 군사학 교육기간·과

목편성 현황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목과 방법의 구체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학교는 출신별 능력 차이를 고려한 교육의 필요성과 신임장교 야전배출시 요구되는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과체계 편성방안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각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된 교육방법을 적용하고 임관 후 3사·육사·학군사관의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이번 토의를 주도한 육군교육사령부는 최정에 장교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토의의 가장 큰 성과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날 토의의 핵심 인사인 황대일 학교장은 “군사훈련 목표와 중점을 기초로 육군 리더십 모형과 야전에서 필요한 능력을 고려한 정예 신임장교 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중점을 기초로 정예장교 육성을 위해 모두의 생각을 모아서 노력을 결집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육군교육사령관(중앙 우측), 학교장(중앙 좌측) 등 토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19 도서관 전자정보시연회’ 개최

내 손안에 작은 도서관 체험

본교는 지난 13일 사관생도들과 기간장병들을 대상으로 ‘2019 도서관 전자정보시연회’를 개최했다.

전자정보시연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로 각종 도서 및 전자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도서관을 찾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책, 논문검색, 오디오북, 학술 DB를 검색하는 사이트를 제공하고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KISS와 같이 국내 유명 학술정보와 교보문고 등에서 제공하는 도서 및 매거진 등의 전자정보 자료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교보스콜라·뉴논문, KISS, e-Article(국내 학술지 D/B), JDDS, Academic Search Premier(해외 학술지 D/B), 북집(도서 요약 서비스), 모아진(전자잡지), 교보문고(전자책) 등 8개 업체가 참여

해 각종 전자정보를 시연하고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김유란 사관생도(55기)는 “전자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과제물 작성 및 수업참고자료 확보가 보다 용이하며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논문자료와 최신 학술정보자료를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다”고 밝혔다.

도서관장 박주오 중령(무기시스템학 교수)은 “학습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찾아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자정보자료를 수시 활용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관생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들이 도서관과 더욱 친숙해지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대위 손아리



▲ 사관생도들이 전자정보시연회에 참석하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충성대
만평

도약적 학교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특수간부사관(교수요원) 출신 학교발전 세미나 개최

지난 3월 22일 본교에서는 특수간부사관 교수요원 출신 사회 인사 14명을 초청해 학교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14명의 사회 인사들은 과거 보병학교에서 16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할 때까지 3사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한 예비역 장교이자 교수요원 출신들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재 사관생도들을 교

육하고 있는 교수요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교의 발전을 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이날 김진규 부천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시대의 미래교육 실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으며, 이후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시 갑)과 차도완 교수(중령(진) 이공학처) 등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고, 학교 및 교육발전을 위해 힘을 모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차도완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더욱 발전시켜 정예장교 육성에 기여하겠다"며 소감을 말했다. **하사 김현석**



▲ 특수간부사관 출신 사회인사들과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영천 벚꽃 마라톤 대회

영천댐 따라 늘어진 100리 벚꽃길 '환상의 레이스'

지난 4월 14일 영천댐 일원에서 열린 '2019 영천댐 벚꽃 100리길 마라톤 대회'에 본교 생도대장(준장 고창준·3사 26기) 등을 포함한 생도 280여 명이 참가해 민·군 화합을 이뤘다.

특히, 사관생도들은 벚꽃이 만개한 영천댐 주변 5km와 10km를 함께 달리며 사관생도로서 소속감 및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영천댐공원을 출발해 묘각사와 강호정, 자양면사무소, 망향공원을 지나 삼귀다리를 지난 지점을 반환점으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벚꽃 눈이 휘날리는 영천댐 주변 벚꽃 길 속으로 힘찬 레이스를 펼치며 영천댐 풍광을 온몸으로 느꼈다.

이번 대회에서 10km 코스 남자부문에 참가한 김미봉 대위(체육학과 교수)가 3위를 하였고, 10km 코스 여자부문에 참가한 전수빈, 이유민, 노은지 생도가 차례대로 6, 7, 10위를 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김미봉 대위(체육학과 교수)는 "달리기에 아주 적합한 날씨와 아름다운 주변 풍경 때문에 뛰는 동안 즐거웠고, 평소 꾸준한 운동과 체력 관리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생도들과 함께 운동하여 좋은 결실을 맺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싶다"고 밝혔다.

전수빈 사관생도(55기)는 "학교에서 평소 체력단련을 꾸준히 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번 마라톤을 통해서 동기·후배들과의 추억도 쌓을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55기기자생도 고명 환



▲ 영천 벚꽃마라톤에 참가한 간부 및 사관생도들의 기념 촬영

“충성! 사관캠프 입소를 명받았습니다.”

경북지역 청소년 대상 올해 첫 사관캠프 개최

본교는 분경 분창고등학교 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올해 첫 '충성대 사관캠프'를 열었다. '충성대 사관캠프'는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한편, 장교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경상북도와 협약 하에 추진해오고 있는 인재육성 사업이다.

이번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은 2박 3일간 전투복을 입고 입소식과 안보 공감 교육, 사관생도 생활관 견학, 점호 및 경계근무를 체험하고, 생도들의 멋진 행진을 볼 수 있는 충성의식에 참가하는 등 생도생활을 직·간접 체험하면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국

기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교관 및 조교들의 지도이래 화생방 훈련, 서바이벌, 헬기 레펠, 암벽등반 등의 군사훈련 체험을 하며 심신을 단련함은 물론, 극기력과 인내심을 길렀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최승민 학생(17, 분경 분창고 1학년)은 "장교가 되기 위한 사관생도들의 노력과 인내심이 존경스럽다"며, "캠프를 통해 장교라는 꿈이 생겼고, 학교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 꼭 꿈을 이루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학교에서 진행되는 '충성대 사관캠프'에는 고교생·대학생·다문화 청소년들이 10월까지 5개 기수 1,038명이 입소할 예정이며, 그간 '충성대 사관캠프'를 거쳐간 인원은 9,000여명이다.

주무관 이경희



▲ 충성대 사관캠프에 입소한 고등학생들이 헬기레펠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육군 블로그 '아미누리' 기획취재 촬영

지난 4월 16일, 육군 미디어콘텐츠과에서 본교 여생도들을 대상으로 '육군에 도전하는 여군들'이라는 주제로 기획취재를 진행하였다.

이번 기획취재는 미래 여군 양성과정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꿈이라는 주제로 이들도 다른 20대처럼 자신만의 꿈을 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되었다.

취재에 참여한 55기, 56기 여생도 6명을 대상으로 일반학 수업, 도서관 이용, 전투체육 등 하루 일과를 사진에 담으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한 정아란 생도(56기)

는 "이번 취재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날 육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에서 취재를 나온 담당 간부 김정인 중위는 본교 52기 졸업생이자 3사관 학교에서 배출한 첫 여군 기수로, "모교를 홍보하게 된 것에 더욱 애착이 가고 정훈장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기획취재는 육군 네이버 블로그 '아미누리' 등 육군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무관 김진규



▲ 기획취재에 참여한 여생도들이 호국정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진실을 마주보다”

만화가 윤 태 호



▲ 56기 정아란 생도(좌) · 55기 권보일 생도(우)가 윤태호 작가(중앙)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Q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화를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 또 본격적으로 만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A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신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4컷 만화를 연재했어요.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만화를 좋아하니까 저도 역시 만화를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발전한 것 같아요. 또한 6학년 때 미술부 생활도 병행했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88년도에 허영만 선생님의 분하생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만화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Q ‘미생’이나 ‘내부자들’ 같은 작품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에 주목하셨는데 이런 소재를 어떻게 작품화하게 되셨습니까?

A 저희 세대의 작가들은 이런 사회적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사명감이나 소명 의식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부조리 같은 것들이 가장 눈에 아른거리고 손에 잘 잡히는 소재들이었어요. 특히나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나 정치학에서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을 취재가 아닌 뉴스 검색만으로 제대로 알 수 있을까를 시험해 본 작품이었고, 스토리를 쓸 때 뉴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드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창을 40~50개 정도 띄워놓고 할 정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Q ‘미생’이란 작품은 직장인을 포함한 사회인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면서 수많은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완생이 있으십니까?

A 살아있을 때는 완생이 없다고 생각해요. 완생이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지, ‘완생을 해야겠어’라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완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일 뿐, 우리가 완생이 된다면 그 자체로 신이 아닐까요? 사람은 매우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세포를 하나하나까지 모두 기능이 있어요. 그러한 척도가 있고, 우리는 그 척도대로 살아가요. 완생에 가까워지려면 나를 알아야하고 명상을 많이 하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즐거울지를 알게 되고, 그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작품을 창작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꽤나 공학적인 단계입니다. 저는 그 ‘로직(Logic)’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테마가 잡혀야 해요. 장기적으로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효한 가치일까, 유효한 테마일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제목을 정해요. 제목이 존재해야만 작품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등장인물을 만들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만들어요. 언제 어떤 도시에서 태어났고,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는지. 저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지만 창작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대중작가지만 오히려 대중 문화를 접할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바둑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본다고 하듯이 대중들이 더 잘 봐요. 그러니 최소한의 방어를 하려면 내 등장인물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고, 등장인물을 구성하다보면 이야기가 서서히 생겨요. 이러한 플롯(Plot)이 생기면 순서를 뒤섞어 봐요. 어떤 것이 먼저이고 나중에 오는 것이 더 좋은지 고민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클라이맥스를 정하는데 보통 사건의 크기가 큰 것이나 이야기의 뒷부분에 오는 것이 클라이맥스라 생각하지만 클라이맥스는 ‘작품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하는 기승전 개념에 대한 해소입니다. 작품을 만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공학적인 과정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Q 현재 만화협회 회장, 누룩미디어 대표, 새로운 장르 도전 등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 모든 작가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40세 이후부터 인생이 풀렸거든요. 그 전까지는 연재만 했었는데 그 이후 ‘이끼’ · ‘미생’ · ‘내부자들’ 같은 작품들이 잘 된 덕분에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지금은 예전보다 하고 싶은 것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습니다. 예전에는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좇았다면, 지금은 제가 원하는 작품을 할 수 있는 거죠. 제 분야의 공부도 30년 쯤 하니 점점 농익게 된 부분도 있고,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열정이 슬그머니 올라와요.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독자와 저의 작품,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며, 함께 늙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작가님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A 그때그때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달라요. 지금은 공평하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아들이 집에서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서의 억울함은 스스로 견뎌야 할 문제지만, 가정에서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오해가 자식에게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억울함이 사람을 굉장히 괴이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어릴 때, 자식이 부모의 오해로 인해서 억울하고 미우면 일부러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을 해치는 것. 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평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요.



Q 작가님의 인생 멘토가 있으십니까?

A 누구에게나 멘토는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안만들려고 해요. 살면서 한 사람에게만 배우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전부터 존경할 사람은 많았는데 멘토로 삼려고 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요즘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자 길. 그 길은 혼자거든요. 그곳에 다른 멘토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져놓은 땅과 길. 그것이 멘토이자 길이죠. 누군가는 삶이 힘들어서, 무료해서, 무의미해서 걸어갔던 길을 나도 한 번 가보는 거죠. 처음에는 거창한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3, 4일이 지나면 그냥 걷는 것만 남아요. 생각을 못할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돌담이 보이고, 이름 모를 풀이 보이고, 마을이 보이고. 그곳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의 기준, 다른 사람이 잡은 목표를 잡기 보다는, 스스로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Q 앞으로 정예장교가 될 3사관학교 사관생도들에게 해주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하는 용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이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관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잖아요. 결국 최고 상관은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의 기준을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네요. 55기 기지생도 권보일 56기 기지생도 정아란

훈육대 소개: 8중대 용맹함의 상징, 관창중대

#1 중대의 역사·상징



생도과정 부활시 존재하지 않았던 8중대는 1998년에 새롭게 창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8중대는 기존에 없다가 새로이 편성된 중대였기 때문에 더욱 단결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현재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8중대의 상징인물은 화랑 '관창'이다. 지난 1999년 각 중대별로 상징적인 인물을 정할 때 화랑 '관창'을 정함으로써 중대는 '관창 8중대'로 불리고 있다. 관창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관창은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군을 향해 돌격했으나 계백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계백은 관창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돌려보냈으나 재차 돌격한다. 계백은 관창의 머리를 베어 말 안장에 매어 돌려보낸다. 원통함에 사기가 높아진 신라군은 백제군을 상대로 싸워 이김으로써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렇듯 관창이 보여준 '임전무퇴'의 기상을 이어받은 8중대는 어떤 일이 닥쳐와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중대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중대가

현재 생도대의 각 중대가 부르는 중대가는 98년 후반기에 만들기 시작하여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8중대가는 다음과 같다.

(쿵) 물러서지 마라 다시 깨어나 싸워라
이 몸이 닳아 흙이 되도 나 조국 지키리
푸른 제복의 멋과 솜은 사나이 기습
(에헤이) 그대는 젊은 청송 역사의 빛이여라
전진불패 8중대 관창의 혈 그 후에여라
신화 창조 충성대의 그 영원한꿈이여라
푸른 소리 우리의 멋 저 푸른 창공에 밝게 퍼지리라.



#3 중대 좌우명



트리플S
Smile: 항상 웃으면서 대하며
Speed: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Set: 동료들과 같이 하는 생활



#4 훈육 장교(대위 주유성)에게 묻다



Q 8중대는 '이것'이 강하다!

A 중대장 생도를 중심으로 한 중대의 단결력이다. 특히 분열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분열은 제식의 꽃이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할 수 있는데, 이 분열을 특출나게 잘하는 중대가 8중대이다. 여러 행사에서 8중대가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Q 선배 장교로서 생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A 볼모텔을 만들자. 군 생활을 하며 모범이 되는 사람을 볼모텔로 삼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생도가 되면 좋겠다. 나의 개인적인 볼모텔은 '사관생도'이다. 생도를 볼모텔로 삼은 이유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신독의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생도들 모두 볼모텔을 하나씩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5 중대장 생도(황선우 생도)에게 묻다



Q 8중대는 '이것'이 강하다!

A 중대장 생도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8중대는 소속감이 강해서 마음을 모았을 때, 누구보다도 단결력이 강하다.

Q 중대장생도가 원하는 8중대의 모습

A 불광불급(不狂不及). 어떤 일을 할에 있어 그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열정이 넘치는 마음가짐으로 푹푹 뭉쳐 남들보다 한발 더 나아가 뜻을 이루는 관창 8중대가 되었으면 한다.



55기기자생도 현선헌

생도 앙케이트

생도들은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지난 3월 18일 새 학기가 시작되고 주말이 되었을 때도 외출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잔류하고 있는 생도들에게 '주말 간 학교에서 잔류 시 운동, 독서, 공부, 휴식 중 무엇을 하는가?'를 물어 보았다.

총원 1025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과반인 약 69%의 생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운동 189명(약 20%), 공부 53명(약 6%), 독서 44명(약 5%)순으로 나타났다.

생도 상당수가 휴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휴식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부 의견을 들어보았다. 인터뷰를 진행한 A생도는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정비시간이 주어지는데 많은 생도들은 주중 업무 및 개인 공부로 인해

취침시간이 늦어져서 주말 간 부족한 휴식을 취한다."라고 답했고 B생도는 "독서, 운동, 체력단련, 수업, 과제 등 해야 할 일이 많고 또한, 공적인 일과로 시간 +a로 들어 피로가 누적되어 쌓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이처럼 생도들은 평일에 쌓이는 피로를 풀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며 주말 간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땀을 흘리며 스트레스를 풀거나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실시하는 생도들이 20%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독서·공부를 하며 틈틈이 자기계발을 실시하는 생도들도 의외로 많았다.

생도들은 정에 장교로 거듭나기 위해 4년 과정을 2년으로 압축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지치기 마련이다.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생도들의 힘찬 생활을 위해 휴식 여건을 늘리고 이와 더불어 운동과 자기계발이 어우러진다면 올바르게 유능하며 헌신하는 정에 사관생도 육성에 한걸음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55기기자생도 박동주



생도의 명예

마키아벨리와 신독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정치 이론가다. 대표작으로는 「군주론」이 있으며 윤리와 정치를 구별해놓은 그의 사상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가 통일 문제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문제를 보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 로마는 건국 초 약체국이었던 시대부터 권모술수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로마인이 성공했듯이 그런 더러운 짓을 한 결과로 성공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목적을 이루거나 권력을 획득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냉혈한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는 묵묵하게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신독의 자세를 지켰다. 그렇기에 현재까지도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정치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독의 자세는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는 행동을 말한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신독이란 자신의 사상을 추구하고 현실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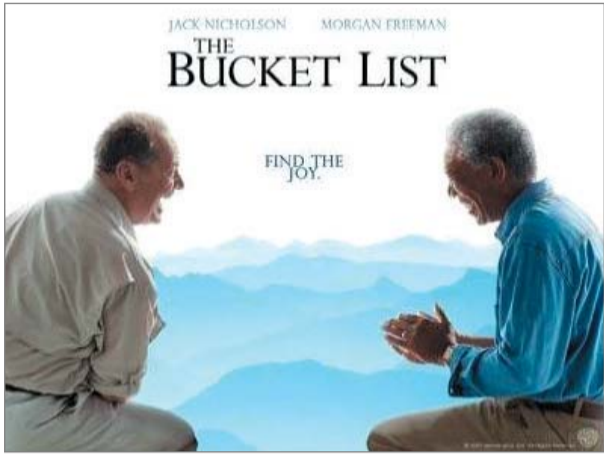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은 마키아벨리가 신독을 지키는 자세로 자연스레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인 그의 사상을 지킨 것처럼 사관생도도 추구하는 이상을 지키기 위해 신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관생도가 추구해야 할 이상은 명예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명예를 지키는 신독의 자세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현실과 타협하고 그저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정복을 입고 출타를 나갈 때 우리는 급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본 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무단횡단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명예와 신독을 지키는 자세와 매우 저촉되는 행위다. 그리고 정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우르르 내려서 무질서하게 음식을 사고 먹는 행동 역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신독의 자세를 지켜야 하는 사관생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명예를 위해 신독의 자세를 지키고자 하면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감을 느낄 수는 있다. 하지만 지위에 맞게, 명성에 걸맞게, 현실과 타협하고 그저 순응하는 모습이 아닌 사관생도로서 명예라는 이상을 추구하고 신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아서 올바르게 유능하며 헌신하는 정에 장교로 성장해야 한다. 마키아벨리의 신념과 참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춘 사관생도가 되자!

55기기자생도 손백서



추천영화 버킷리스트: 죽기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의 유래는 'Kick the bucket', 중세 시대에 자살할 때 목에 밧줄을 감고 양동이를 차버리는 행위에서 유래된 말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을 뜻 한다.

<버킷리스트>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온다. 첫 번째 주인공은 카터 챔버스(모건 프리먼)이다.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는 카터는 일을 하던 도중 암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은 후 병실에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주인공인 에드워드 콜(잭 니콜슨)은 성공한 기업가이지만 에드워드 또한 역시 암에 걸려 병실에 들어오게 된다.

우연히 같은 병실을 쓰게 된 두 남자는 너무나 다른 서로에게서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고 싶던 일을 다 해야겠다는 것.

그렇게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기 위해 병원을 뛰쳐나가 여행길에 오른다.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영양이에 문신하기', '카레이싱', '스키이다이빙', '눈물날 때까지 웃어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지워나가기도 하고 더해가기도 하면서 두 사

람은 인생의 기쁨, 삶의 의미, 웃음, 통찰, 감동, 우정 등 수많은 감정들을 나누게 된다.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남은 시간동안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넘넘하면서 진지한 감동을 주며 재미를 선사한다.

단순히 그들은 꿈꿔왔던 모험만을 한 것이 아니라, 모험을 통해 들은 진정한 우정을 쌓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인생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다. 영화 버킷리스트는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의 자중우돌 이야기를 보여주며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를 깨닫는다. 영화 버킷리스트는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의 자중우돌 이야기를 보여주며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우리들 대다수는 인생의 유한성을 느끼지 못하고 은연중에 무한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시간, 돈, 나이 등 여러 가지 핑계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을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살아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

내가 곧 죽는다면? 병에 걸려서 살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남았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무엇이 가장 아쉽고, 무엇이 가장 슬프고 후회될지, 혹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을지 생각해 보자.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간다. 열심히 달리는 도중에도 한 번씩은 자신을 돌아보며 여유를 가지는 것은 어떨까? 지금 당장 버킷리스트를 작성해보자. 지금이 아니면 늦을지도 모른다. 지금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55기 기자생도 신창윤



책소개

군인, 어린왕자가 되다

저자: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프랑스의 공군 조종사이자 소설가인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왕자>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미국에서 발표한 소설이다. <어린왕자>는 작가가 1935년 비행 중, 사막에不時착 하였다가 구출된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 발표하였다고 한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순수성을 탐구하고자 했던 생텍쥐페리는, <어린왕자>속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른들의 매마른 삶과 현실들을 비판하면서, 아이의 눈높이에 있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되찾길 호소하고 있다.

'나는 늘 어린 시절의 나이길 소망한다.' 생텍쥐페리가 평소 하던 말이다. 생텍쥐페리가 뉴욕에서 체류 중이었을 당시, 미국의 담당 출판업자인 유진 레이날과 저녁식사 도중 낚시에 낙서로 아이 한명을 그렸다. 작가가 자신의 소망에 대해 얼마나 몰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유진이 그림을 보고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 아이를 소재로 동화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이 어린왕자의 집필 계기가 되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생텍쥐페리

는 자신의 소망을 어린왕자라는 책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생텍쥐페리는 전쟁 상황에서도 하늘을 사랑했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사랑한 사람이다.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위해 약혼녀와 파혼하고 두 개골이 파열되어도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날아간 사람. 제 2차 세계대전 중 비행대장을 끈질기게 설득해 최고령 전시조종사로 출격한 그는, 1944년 7월 31일. 정찰비행을 떠난 후 영원히 착륙하지 못했다.

'어떤 별에 사는 꽃을 좋아한다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게 즐거울 거야. 어느 별이나 다 꽃이 필 테니까.'

그의 삶이 담긴 어린왕자 속 문구는 우리의 마음에 꿈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킨다. 바쁜 생도생활에 지쳐, 충성대에 입교할 무렵의 원대한 꿈을 잊었다면, <어린왕자>를 읽어 보며, 감춰놓았던 꿈을 되찾길 바란다.

55기 기자생도 강재원



생도 칼럼



가슴 속에 품은 가치



생도 최재원 (연대장 생도 1훈육대/55기)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생도생활을 시작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품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 고민을 거듭했다.

벚꽃이 화창하게 핀 따스한 4월의 봄날,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한 해답이 있었다. '조국·명예·충용'이다.

조국(祖國)이란 조국과 나를 동일시하여,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조국과 생사를

같이 하는 국가관이다. 처음 이렇게 큰 뜻을 마주하였을 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나의 신념에 맞게 조국의 뜻을 바꾸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되니,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눈에 보였고, 더 수월하게 나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명예(名譽)란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이 자리를 떠나고 남는 것은 결국 이름뿐인 것을 느꼈다. '19-1 차 연대장 생도 최재원은 어떤 사람이였다.'라고 시간이 흘러 후배들에게도 긍정적이고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 거론된다면 그것이 바로 명예라고 생각한다.

명예를 위해서 본인의 이름이 달린 옷을 입은 채로 행동할 때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동하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생도의 명예는 거창한 미사여구를 붙일 것도 없이, 단지 자신의 이름 앞에 한 치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용(忠勇)이란 오직 나라와 겨레 앞에 충성과 용기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도가 가져야 하는 충성과 용기는 과연 무엇일까?

생도는 앞을 보고 달리는 존재이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달린다면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기 힘들다. 생도는 앞만 보고 달리다 넘어져서 다쳐도 괜찮다.

회복하는 법,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한 번 넘어

어졌던 장애물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서 이전에 나아가 실수하지 않으면 된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생도의 용기다. 1년의 생도 생활을 하는 동안 느끼고 배워온 신념이다. 이 신념을 통해 생도 생활을 함에 있어 보람을 찾았고 방향을 찾아나갔다.

내가 느끼는 신념과 가치만이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내게 등대가 되어주는 생각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목표를 향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한다.



독자투고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㉔기미(己未)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의 발자취를 따라서

3.1만세운동의 발자취를 찾기로 한 두 번째 연재 기사를 위해 아침 일찍 서울로 가는 KTX에 몸을 실었다.

서울역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향한 목적지는 3.1만세 운동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서울 중앙고등학교였다. 개인적으로 모교(母校)이기에 감회가 새로웠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내려 현대사옥 방향으로 약 10분쯤 올라가면 학교에 다르는데, 이화여고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고등학교 캠퍼스에 선정되기도 하였

고, 한류(韓流) 드라마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천국의 계단' 촬영지이기도 해서 아직도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학교를 찾다고 한다. 이곳에서 대표적 항일(抗日)운동인 3.1운동이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었다. 학교 인근에는 북촌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같이 둘러보아도 좋을 것 같다.

중앙고등학교가 3.1운동의 발원지라 불리는 것은 3.1운동 이전 일본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유학생 송계백이 1919년 1월 중앙고등학교 숙직실에서 당시 교사였던 현상윤과 교장이었던 송진우에게 2.8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3.1운동이 계획되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숙직실은

헐리고 자리를 옮겨서 3.1운동 기념관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어 들른 장소는 민족 대표 33인 대표격인 의암 손병희 선생이 당시 교주(敎主)로 있던 천도교(天道敎) 교당(敎堂)이다. 이 곳 또한 3.1 독립선언문을 보관(1919년 2월 27일 22:00 이후)하고 배부한 유적지이기도 하여 3.1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둘러보아야 할 장소이다.

천도교 교당에서 종로 방향으로 10분쯤 이동하면, 3.1만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발된 탑동(現 탑골)공원 이른다. 이곳 팔각정에서 1919년 3월 1일 14:00에 독립선언문이 최초로 낭독되고, 3.1운동을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후 발길을 돌린 곳은 탑골공원의 민중 중심의 만세운동과 동시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을 한 태화관(명월관 인사동 지점)이다. 이곳에서 1919년 3

월 1일 14:00에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33인이 모여 독립을 선언하였다.(33인 중 1명은 중국에 조선의 독립을 알리러 갔으며, 지방에 있던 3인은 당시 현장에는 없었다.) 현재 태화관은 없으며, 그 자리에는 태화빌딩이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실제 독립선언문이 실제 인쇄되었던 현재 조계사 경내에 있는 보성사(당시 보성학교 내 인쇄소)였다. 기미독립선언문은 1919년 2월 27일 18:00~22:00에 극비리에 1,000장이 인쇄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천도교 교당에서 보관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 보성사역시 그 흔적만 남아있다.

짧게 돌아본 여정이지만, 지면으로 소개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장소들이기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은 가보기를 권해드리고 싶다.

중령 최재호

독립선언문 이동 경로



독자투고 RULE이란 무엇인가?



소령 길문수 (2작전사령부 작전처 합참 연락장교)

韓·美동맹의 산실인 19-1차 韓·美동맹연습이 지난 3월 실시되어 성과 있게 잘 마무리 되었다. 급변하는 대북관계와 국내·외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연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나는 2작전사령부 작전처 소속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연락장교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협조하여 연합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전쟁 상황에서 승리하는 해법을 내는 양국의 선배, 동료, 후배 군인들 모두가 참모로 대단했다. 과히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작전수행능력을 가진 미군이라고 할만 했다.

어떻게 저러한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과거의 경험을 들어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

면, 그것은 바로 RULE!이다. RULE! 사전적 의미로 규칙, 규정, 법칙이라는 뜻이다. 통례, 관례, 습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사실 미군과의 관계는 처음이 아니다. 약 5년 전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소속으로 약 3년간 근무한 적이 있었다. 오늘 나는 그때의 일화를 얘기하고자 한다. 주한 미 8군 미 2사단 본부(의정부 소재 Camp Red Cloud)에서 한국군 지원단의 참모로서 카투사들과 함께 임무수행을 할 때다. 영어능력 향상과 체력단련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매일 6시에 출근하여 미군들과 함께 체력단련을 함께 했던 시절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미군들과 업무하기에 영어 회화가 부족하고 합동대를 막 수료한 터라 체중도 많이 붙어있어서 내린 나름의 처방이었다.

정확한 매뉴얼은 잘 모르겠지만 주차별로 규칙적인 체력단련을 했었는데 어떤 날은 완전군장을 한 채로, 어떤 날은 편한 운동복을 착용한 채로, 또 어떤 날은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영내를 뛰어다녔다. 한 1개월여쯤 지났을까?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 그날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영내를 10Km정도 뛰는 날이었다. 웬지 비가 오면 체력단련을 실내에서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그 날은 체력단련을 열외하고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무실 앞이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내다보았더니 매일 아침 나와 함께 체력단련을 하던 인원들이 빗속에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열심히 군가를 부르며 뛰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날 해야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중대장시절 이라크 파병을 갔을 때의 모습이 생각났다. 기상나팔이 울린 후 아침점호에 나가기 전 컨테이너형 막사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든 점호를 열외 하고자 하는 마음에 실내점호인지 실외점호인지를 문의하기 위해 동기인 대대 당직사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통화중이어서 짜증났던 내 모습... 비가 오니 다른 중대장들도 똑같은 이유로 너도나도 전화를 하다 보니 지휘통제실 전화기가 불이 났던 것이었다.

지난 군 생활을 돌아해보면 생도 때부터 항상 이러한 점이 고민거리가 되었던 것 같다. 비가 오면? 바람이 많이 불면? 기온이 너무 높으면? 등. 이것 말고도 조급이라도 하기 싫거나 귀찮은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든 열외를 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유리한 선택적 판단을 하곤 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은 비가

오니 반대쪽에 막걸리를 먹어볼까?”, “오늘은 먼지가 많은 날이었으니 삼겹살에 소주한잔 해야겠어!”와 같은 이유를 가져다 붙이기 좋은 것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했던 것 같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사실 RULE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를 반성하게 되는 내용이다. 비 좀 맞으면 어떤가? 비 오는 날 훈련하는 것이 더할 나위없는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하신 어느 지휘관의 말이 불현듯 떠오른다. 어쨌든 비 오는 날 방독면을 쓰고 그것도 군가까지 부르면서 열심히 체력단련을 하던 미군을 보며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큰 깨달음이 전해왔다.

RULE! 하게 되어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 나름대로 고민한 나의 정의이다. 이것이 현재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군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군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사대주의가 절대 아니다. 단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틀을 깨지 않고 RULE을 지키려는 그들의 문화가 대단하고, 또 그러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 꼭 필요한 것임을 피력하는 것이다.

군 생활 20년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지만 다시 한 번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RULE을 지키며 임무수행하기로 마음을 다잡아 본다.

사설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의 내몽골지역과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한 모래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던 황사가 봄철 미세먼지의 대부분이었다면, 근래의 미세먼지는 산업화에 따른 각종 공해물질이 대거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일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눈병 등을 유발하고 각종 알레르기 및 피부병 등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반도체나 정밀기기 등의 고장을 유발하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산업 활동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례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날은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의 서울 4대분 안으로의 진입이 금지되고, 이마저도 7월 1일부터는 상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로 인해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영세상인이나 사업자들이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한동안 클린디젤이라는 이름으로 폭발적 인기를 누렸던 디젤엔진은 2017년 말 발생한 폭스바겐사의 디젤게이트로 인해 그동안 주장해 온 환경친화성이 허구일 수도 있음이 드러났고, 급기야 도심 내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기에 이르렀다.

한동안 경유차를 장려하였던 정부의 정책도 디젤엔진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돌아서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경유차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자동차 산업이 탈디젤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였고 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적 변혁을 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행히 기업들은 최근 몇 년 새 지구의 온도 상승과 미세먼지 등의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고려하여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있다. 아예 기존의 가솔린, 경유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벗어나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불법했던 전기로 가는 자동차, 물(수소 에너지)로 가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한 위기를 맞아 가만히 앉아서 당한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통해 위기를 호기로 삼아 도약적 발전을 이룸으로써 얻은 결과이다. 어느덧 우리학교도 개교 5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도전 50년 도약 100년”의 슬로건을 내걸고 성대히 50주년을 보낸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00년의 도약을 위한 새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다.

도약이란 무엇인가? 직언한다면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을 말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타당하다. 그렇다. 지난 50여 년간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각오로 온갖 차별과 시련을 극복하고, 오직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조국에 충성하고 장교로서의 명예를 지켜온 결과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새해 들어 학교는 ‘강인하고 스마트한 초일류 인재육성’ 등 4가지의 슬로건을 새로 지정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다. 더불어 학교의 ‘도약적 변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였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기능과 부서의 명예를 걸고 과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4월 30일에는 그동안 연구하고 토의해 왔던 과제들을 보다 발전시키고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학교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그 결과가 사뭇 기대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오직 도전하는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거머쥘 수 있다. 충성대인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칠 작은 파도에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나온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라고 한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듯이 지난 50년의 도전을 발판삼아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갔으면 한다.

도약을 위한 도전을 멈춰서도 안 되며, 성공에 대한 의심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게서 미세먼지로 인한 위기를 신기술로 극복한 기업 보다, 가슴 뜨거운 열정과 충성심이 있기 때문이다.

주간 고성진

4차 산업 시대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

충성대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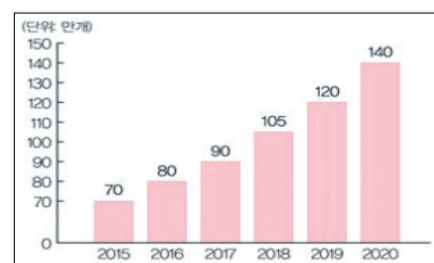
중령 이승규(이공학처 컴퓨터공학과 교수)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갖춘 애플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앞서가는 기업의 혁신은 다름 아닌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BMW의 무인자동차 연구개발비의 90%가 소프트웨어에 투자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도입예정인 최신식 전투기인 F-35의 75%가 소프트웨어에 투입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과연 무엇일까?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이며 이는 컴퓨터를 작동하게 만드는 논리적 바탕을 제공한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에 따르는 기술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몸을 움직이는 두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컴퓨터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운영체제 등의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와 문서작성이나 게임 등 특정분야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이다. 컴퓨터가 처음 개발된 초창기에는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응용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소프트웨어가 급속히 확산, 가속화 되고 있으며 미국의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만 120만 개 정도이며, 20년 뒤에는 약 140만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높은 연봉과 양호한 근무환경 등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시대의 주역인 청년 및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컴퓨터과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으며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추세(출처:code.org)

소프트웨어 교육은 SW, 프로그래밍, 코딩(coding), 컴퓨터 기초 등 생활에서 만나

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 위주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코딩하는 과정을 스스로 체감하고 ‘생각하는 힘(thinking power)’을 길러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하는데 있다. 이를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라고 하는데 이는 컴퓨터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문제 분석, 분해, 패턴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평가 등의 과정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생도들은 스스로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구상하게 되고 사고력, 논리력, 창의력, 상상력, 문제해결 능력 등이 향상되며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까지 향상되어 이후 미래 직장 환경에서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인 산업 분야의 기초가 될 것이다. 민간 대학에서는 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또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미래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이 활용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정부는 2014년에 이미 범정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원에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SW 기반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주도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IBM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왓슨(Watson)’을 개발했고, 구글은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의 신경망 소프트웨어 ‘알파고(AlphaGo)’를 개발하여 바둑 고수 이세돌 9단을 이겨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역량이며, 이는 혁신과 성장, 가치창출의 중심이자 핵심이다. 이는 개인 및 조직의 핵심 역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흐름에의 적응은 필수적이다.

비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 바로 그대!

사회 저명인사 칼럼

김상동(경북대학교 총장)



화발다풍우(花發多風雨)라는 옛말이 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우무릉(于武陵)의 유명한 시 구절 중 일부로, 꽃이 필 때는 그만큼 비바람도 많다는 것, 즉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중에는 많은 시련 또한 따른다'는 의미이다.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을 이보다

로 여겨지는 것도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인 나는 단 한번도 우리나라에 사는 것이 불안했던 적이 없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나 남북 관계, 혹은 국내의 큰 사건으로 인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고, 내가 무

조국과 자신, 그리고 국민 모두의 명예를 지키는 충용의 정예로 학교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빛내길

더 잘 표현해주는 말은 없는 것 같다.

한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방문하기가 꺼려진다는 외국학자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렸다. '일촉즉발의 전쟁 발발 주의지역인 대한민국'에 선블리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는 말이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여전히 휴전 중인 한반도는 외국인들이 보기에 방문하기 곤란한 국가

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적은 있다. 그것은 '불안'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일 뿐이다.

내가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내 나라를 지키는 데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있는 국군장병 그리고 그들의 지휘관인 장교들 덕분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그 시절 군이

라는 곳에서 처절하게 느끼고 배운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다.

세상이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원칙이다. 대학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의栋梁지재(棟梁之材)를 배출하는 것이다.

육군3사관학교의 목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호국간성의 요람으로 국군장병들을 이끌어 갈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정예 장교'를 키워내는 것이다. 이것은 3사관학교 교수님들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장교가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입학한,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예비 장교들의 단단한 마음과 희생적인 실천이 함께 필요한 일이다.

훈련의 어려움보다는 그 훈련을 통해 얻는 굳건한 정신을 먼저 볼 수 있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다양한 전공에 대한 수학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장교로서의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한다.

조국 수호의 길, 그 하나만을 향한 행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

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더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대한민국에서 또 누군가는 해외 파병지에서, 신뢰받는 리더로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인류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어느 위치에서건 '조국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명예를 지키는 충용의 정예'로 3사관학교는 물론, 대한민국의 가치를 빛낼 것이라 기대한다.

꽃은 봄을 맞아 저절로 피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비바람을 이겨내며 피워내는 것이다. 국민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그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조국 수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많은 이들의 헌신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봄을 지켜주고 또 지켜갈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제4차 산업혁명과 자주 국방의 미래

미래의 군사발전 이야기 ①

제갈덕주(꿈창작연구소 소장)



제4차 산업혁명은 독일에서 도입된 개념으로서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계적 토대의 발전 방향을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개념이다. 산업화는 기계를 수단으로 하여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때 최상위 기계는 곧 인공지능이므로 결과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의 완성을 의미한다.

서도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한국형 용어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지능정보사회'이다.

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제3차 산업혁명을 '지식정보사회'라고 부른 것에 비견

이 바로 드론(로봇)과 빅데이터이다. 전자는 인공지능의 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후자는 인공지능의 머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드론과 빅데이터의 도입은 미래형 전투에 있어서 각각 화기전과 정보전의 양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소형 드론의 경우 레이더망으로 식별이 어려워 침투 작전과 암살 작전에 용이하다. 2018년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진행된 CES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소형 전투드론이 소개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손바닥 크기의 전투드론이 최단시간에 자율비행을 하여 공중에서 권총 강도의 소형탄으로 대상을 타격하는 모습이 시연되었다.

빅데이터는 광범위한 자료(Data)를 기반으로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패턴을 찾아주기 때문에 '예후 진단'에 최적화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상품 시장에서 구매 정보에 관한 개인정보밖에 제공되

고 있지 않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소비심리를 분석한 기업들에 의해 유통구조에 일대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전투 기술에 있어서 빅데이터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패턴을 찾는 것보다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특수한 이상 현상을 포착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빅데이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정보 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에 중요한 원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이다. 그러나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것만이 어쩌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주 국방의 대안일지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본교에서 이러한 미래전에 대비하여 '스마트 드론부'와 '빅데이터 지능정보부' 같은 새로운 문체활동부서를 신설하였다고 하니 생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해 본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주 국방의 대안은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것

2013년, MIT 공대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기계적 자가학습)의 상용화를 선언했고,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에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이 급부상하였고, 우리나라에

하여,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인공) 지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 용어를 '지능정보사회'라 명명하게 되었다.

지능정보사회란 결국 과학 기술을 통해 초연결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인데,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



전쟁과역사 <2>

화랑에게 전쟁, 통일을 묻는다



중령 김국진
(교수부 군사사학과장)

화랑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오른다. 화랑이란 무엇인가? 또는 화랑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아니면 화랑이 전쟁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현재시점에서 수많은 역사적 존재 중에 왜 화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 한국 전쟁사에 있어서 화랑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등등의 질문이 떠오른다.

위와 같은 여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화랑이라는 존재와 신라시대 화랑의 위치, 그리고 삼국통일에서 화랑의 역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화랑의 기원, 화랑의 구성, 신라시대의 화랑의 위치, 삼국통일에서의 화랑의 역할 등을 논해 보려고 한다.

화랑도의 모체로 알려진 원화제도의 핵심을 원화(源花)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이끌게 하고 행실이 뛰어난 사람을 골라 등용하는 것이었다. 최초 원화는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이라는 미인이

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여인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결국 준정이 남모를 죽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화제도는 폐지되었고 그 대안으로 남자인 화랑(花郎)이 리더가 되어, 평소에는 낭도들과 함께 심신을 단련하고 비상시에는 나라의 부름에 응하는 청소년 조직으로서 화랑도를 시행했던 것이다.

화랑도는 이전부터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전통으로 이어온 청소년조직을 국가에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반관반민 단체'이다. 하지만 화랑도는 초기부터 국가 조직과 다를 바 없는 정밀한 체계와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었다.

화랑도는 화랑 1명과 승려 1명, 수많은 낭도로 구성되었다. 리더인 화랑은 대체로 2백여 명에 달하는데, 진골 귀족 가운데 용모가 아름답고 신의가 깊은 인물로 선발되었다. 승려는 화랑의 정신적 지주로서 불심이 깊고 덕망이 높으며 학문이 뛰어나야 했다. 화랑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낭도들은 서라벌에 거주하던 귀족과 평민들이 고루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시대 진평왕대에는 이들을 국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을 관청에서 담당하게 하고 이들을 관장하는 화주(花主)를 제정했다. 뿐만 아니라 화랑도의 총 지도자로서 진골이나 성골 출신의 국선(國仙)을 선발하고 그로 하여금 수개의 문호(門戶)를 다스리게 했다.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태종 무열왕 김춘추, 김유

신 장군 등이 바로 국선 출신이었다. 화랑도의 전성기는 삼국 통일전쟁이 치열하였던 진흥왕대부터 삼국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였다. 이 기간 동안 화랑도는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그들은 수련기간 중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과감하게 종군했고 수련기간 이후에는 정규부대인 당(幢)·정(停)에 편입되어 정식 군인으로 활약했다.

당시 그들은 국가를 위해 전장에서 의롭게 죽었고, 패하면 자결할지언정 포로가 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 가야 정벌의 주인공이었던 사다함, 황산벌 전투의 관창, 김유신 장군의 아들 원술랑 등의 예가 바로 그것이다. 《화랑세기》의 저자인 김대문은 “현명한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서 솟아나오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한 병졸들이 이로 말미암아 생겨났다”고 칭찬했다.

화랑도는 진골 귀족은 물론 하급 귀족, 일반 평민 출신 등 다양한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들은 애국애족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굳게 결속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화랑이 자신을 따르는 낭도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농공행상에 철저히 함으로써 충성심을 이끌어낸 측면도 있었다.

이에 학교는 2012년 말부터 사관생도들에게 이런 화랑도의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해 학교 인근의 화랑 수련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정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화랑의 수련지 일대에 소재한 본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화랑정신 본위의 호국 상무정신을 함양하고 전통화시켜 장차 남북통일의 주역이 될

사관생도들에게 화랑의 후예로서 자긍심을 배양하게 하는 것이다.

중점사항으로 첫째, 화랑정신 계승을 통한 사관생도의 리더십을 배양하고, 둘째, 삼국통일의 정신에 기반을 둔 남북통일의 의지를 고양하며, 셋째,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국가관, 인성관, 사생관을 확립하면서, 넷째, 장차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본교의 위상 제고에 힘쓰는 것이다.

학교 인근의 프로그램의 탐방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해사 소재) 중앙암은 김유신 장군의 수련 장소로 전해지고 있으며, 장군은 김유신 장군이 수련하면서 마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물맛이 뛰어난 석간수이다.

둘째, 단석산은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맡기겠다고 전해지는 신이다. 김유신 장군이 한 신선으로부터 신검을 얻어 바위굴에서 수련하고 내리치니 갈라졌다고 하여 단석산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셋째, 운문사는 중국에서 돌아온 원광법사가 인근에 머물며 화랑으로 여겨지는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계를 전수하였다고 하여 더욱 유명하다. 현재 경전연구 및 교육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찰이다. 2013년부터 운문사는 원광화랑연구소를 개소하면서 화랑정신을 통한 새로운 청년정신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본교는 화랑의 호국 상무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인보에 기여하는 정예장교 육성에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역문화탐방 <1>

달성공원을 걸어보다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으로 둘러싸인 기암절벽의 중심에 자리 잡은 대구는 살기 좋은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서 문화를 꽃피웠다. 유적이 발굴된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후기 구석기시대인 1만 년 이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다. 이후 석기, 청동기, 철기 등으로 도구가 발달하며 집단을 이루었고 자연스럽게 국가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문명은 더욱 발달하며 많은 유적을 남겼다. 이 중 삼국시대의 흔적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심을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연간 입장객이 200만 명을 웃도는 대구의 대표 문화공간이지만 이러한 달성공원이 삼한시대 부족국가를 이루었던 달구벌의 성터 '달성토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일제강점기 시절 군사적인 요충지에서 일본 신사가 지어지고 공



▲ 서침나무

끼기도 했다. 달성공원에서 나오면 벽화가 그려진 돌담을 볼 수 있다. 2014년부터 주민들은 벽화를 그려 넣기 시작하였고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잔디를 심는 등 달성토성의 본모습을 되찾는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벽화 골목 옆



▲ 벽화가 그려진 돌담



▲ 관동루

3호선 달성공원 역에서 5분을 걸어서 오래된 골목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달성공원이 있다. 입구에는 관동루라고 하는 경상감영의 정문이 보인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아름답게 꾸며진 공원을 구경하다 보면 향토역사관과 더불어 동물원이 보인다. 산책로를 따라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휴식처이자 즐거운 눈요깃거리를 제공한다. 도

달성토성 :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서기 108년 신라가 다벌국(多伐國)을 병합한 뒤 서기 261년 달벌성(達伐城)을 쌓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달성토성은 달성 서씨의 세거지였는데 세종대왕 때 달성토성이 군사적 요충지로서 적임지라고 판단했고 문신 '서침'이 조선말까지 서민의 환국을 탄압해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였다. 이에 대구 주민들은 '서침'을 기리는 '서침나무'를 현재 달성공원에 심었다.

원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토성의 윤곽을 따라 걷다보면 지역을 지켜내던 든든한 성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또한 1915년 박상진·김좌진 장군이 주도하여 국권회복과 공화정 정치를 위해 노력한 항일독립 운동 단체인 대한 광복회가 달성공원에서 창설되기도 하였고 4년 뒤인 1919년에는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이러한 달성공원을 걸으며 새삼 나라의 소중함을 느

에는 조형물로 꾸며져 있어 더욱 대구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많이 담긴 달성공원은 조선시대의 달성토성의 모습을 복원하여 역사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다양한 볼거리를 위해 달성공원을 찾아온 사람들은 역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55기 기자생도 김홍윤

634 메아리 (2) 마태석



알러지와 체질

건강상식

세신한의원 한방내과전문의 민재영



우리는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종류의 알러지 증상에 시달리면서 생활하곤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봄철이 되면 날리는 꽃가루에 콧물과 재채기로 고생하는 알러지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다.



알러지(Allergy)란 말은 그리스말 알로스(Allos)에서 유래되었다. 이 뜻은 '정상에서 벗어나 다르게 반응하려 하는'이란 의미이다. 알러지는 다른 사람에게에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일부 물질에 대해 일부 사람에게만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는 증상을 총칭하는 용어로 인체의 면역반응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반응이다. 또한, 알러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물질(음식, 약물) 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 외부의 자극(햇빛, 온도변화, 피부접촉 등)도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외에도 유전적 영향으로 한쪽 부모에게 알러지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같은 알러지가 있을 확률은 30~35%, 양쪽 부모 모두 알러지가 있으면 그 확률은 90% 정도로 높다고 한다.

8체질의학에서는 음식을 체질마다 유익한 음식과 해로운 음식으로 분류해 두었다. 8체질의학 치료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체질별 섭생(攝生)이다. 8체질의학에서는 알러지 질환 역시 각 체질에 해롭다고 분류된 음식으로 유발되고, 그 음식을 제한하고 치료했을 경우 좋은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알러지를 많이

유발하는 음식을 체질별로 살펴보면, 땅콩, 아몬드, 캐슈너트 등 일반 견과류는 금양체질, 금음체질에 아주 해롭고, 견과류 중 은행, 호두, 밤, 잣, 도토리는 금양, 금음체질 외에도 토양, 토음체질에서도 해롭게 작용한다.

조개류, 갑각류, 복어는 목양, 목음, 수양, 수음체질에게는 해가 많고, 금양, 금음, 토양, 토음체질에게는 유익한 음식이 된다. 또한, 대부분의 바다생선은 목양, 목음, 수음체질에게는 해롭고, 민물생선(장어, 미꾸라지)은 금양, 금음체질에 해롭다.

과일 중에 사과는 체장과 위장에 열이 많은 금양, 금음, 토양, 토음체질에게 해롭게 작용해 알러지 증상을 많이 유발할 수 있고, 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망고 또한 금양, 토양, 토음체질은 피하는 게 좋다. 포도는 간과 대장이 약한 목양, 목음체질에게 해롭다. 참외, 딸기, 바나나, 파인애플은 위장에 찬 수음, 수양체질에게는 좋지 않다. 금양, 금음체질에게는 모든 육류가 해롭고, 소고기는 목양, 목음, 수음체질에게 가장 이롭고, 돼지고기는 목음, 토양, 토음체질에게 이롭고, 닭, 오리, 개, 염소고기는 수양, 수음체질에게 가장 이롭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자의 체질에 따라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이 다르고, 해로운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알러지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알러지 질환은 인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상이기도 하므로, 평상시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음식물에 대한 몸의 반응을 잘 살펴서 내 체질에 맞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8체질의학에 따른 섭생표는 www.ecmed.org 참고>

신용카드, 똑똑하게 알아보고 제대로 혜택 받자

손에 잡히는 재테크 ④

국군사랑전담컨설턴트 이시영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며 길가에 꽃이 피어나고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왔다. 겨우내 얼어붙은 지갑에 봄바람이 불었는지 자잘한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다. 편한 결제를 위해 각종 페이류가 등장하고 자리 잡은 요즘, 신용카드를 요구받는 상황이 많아짐에 따라 신용카드를 첫 발급받았다면 이 글을 주목해서 읽어보자!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많은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한다. 하지만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이들이 말하는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이 있다. 바로 '전월 이용 실적'이다.

인할 필요가 있다. 내 카드가 30만원의 전월 실적을 달성할 경우에 커피 할인 50%를 해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카드 개설을 하였더라도 통합 할인 한도가 1만원이라면, 커피 할인 10%지만 통합 할인 한도가 15,000원인 카드에 비해 혜택을 덜 누리는 것이다. 이렇듯 할인 폭이 크다고 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통합 할인 한도가 얼마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카드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흔히 놓치는 것이 바로 연회비다. 신규 회원의 경우 페이백을 통해 연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신규개설을 마음먹었다면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프로모

션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카드사가 신규 개설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며 그 방식에 따라 혜택 금액도 다르기에 내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의 연회비 차이가 있기에 만약 해외 사용이 없을 것 같다면 국내 전용으로 개설하고, 혹시라도 해외 직구 등 해외 결제의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면 해외 겸용 카드 발급을 고려하면 된다. 대신 기존의 해외 겸용 카드가 있다



신용카드는 발급받는 첫 달에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전월 이용 실적을 채워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혜택에 집중해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으면 오히려 전월 실적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월 실적을 채울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의 월 평균 생활비가 해당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임에도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소비를 한다면 이는 오히려 혜택보다 과소비가 커지는 경우이므로 현명한 소비라 할 수 없다. 또, 전월 이용 실적과 함께 고려할 것은 내 카드의 실적 제외 대상이다. 혜택을 받은 항목들이 실적 제외가 되기도 하고, 특정한 항목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 광고는 혜택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이 혜택들의 통합할인한도 역시 확

면(기존 카드에 비자, 마스터, 유니온 등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국내 전용을 발급해서 용도를 구분하는 것도 추천한다.

다양한 혜택에 혹해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의 측면에서는 여러 장을 발급 받기보다 한 장만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여러 카드를 다양한 혜택에 맞게 사용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번거로우며, 신용카드를 처음 발급받은 상황이라면 지출 관리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카드 한 장만을 사용하고, 실적 달성 이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보통 신용카드의 경우 할인 받은 내역은 전월 이용 실적에서 제외되며 혜택이 많을수록 통합할인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으니 내 생활비와 카드의 최소 이용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 발급받아 제대로 혜택을 받아보자.

포토 에세이

57기 기자생도 김유란



졸탁동시(倅喲同時)
생도에게 있어서 교수의 존재란 마치 병아리의 부화를 위해 달걀을 쪄주는 어미닭과 같으니, 그 인연으로부터 맺어진 관계는 매우 깊고 밀접하다.

▲ 김유란생도(우)와 원어민 교수 크리스티나(좌)가 학습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19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19. 3. 1 ~ '19. 4. 15 기부현황)

총 자산 72억 5천만원 (2019. 3. 31 기준)

■ 일반인/단체 : 조재목 5(180), 국민은행 영천지점 1,000(7700), 은혜사 2,000(1억2,000)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軍간부

정한기(육사#39) 1(60), 김영환(육사#43) 2(52), 황대일(육사#43)20(130), 손익수(육사#45) 2(28), 김호길(육사#48) 2(25), 홍성아(육사#48) 2(10), 김태욱(육사#51) 2(2), 두석주(육사#51) 2(134), 최정욱(육사#51) 2(4), 이우진(육사#54) 2(36), 박기홍(육사#55) 2(96), 이승규(육사#56) 2(17), 조상근(육사#56) 2(110), 변용성(육사#58) 2(75), 소병민(육사#58) 2(2), 손창호(육사#58) 2(44), 이귀원(육사#58) 2(69), 이주실(육사#58) 2(54), 차도완(육사#58) 2(28), 김대영(육사#59) 2(136), 김진찬(육사#61) 2(39), 홍희종(육사#61) 2(71), 주성임(육사#63) 1(2), 홍인재(육사#65) 2(4), 최병권(육사#66) 2(3), 문준호(육사#67) 1(18), 이천우(육사#68) 2(14), 권성진(육사#69) 2(2), 부형준(육사#69) 2(29), 이진호(학군#24) 2(57), 한덕수(학군#26) 2(71), 고성진(학군#31) 2(11), 구희곤(학군#32) 2(78), 유명근(학군#36) 2(53), 전성권(학군#36) 2(40),곽홍렬(학군#37) 2(4), 송경재(학군#37) 2(98), 나창근(학군#41) 2(10), 조환희(학군#41) 2(12), 황태열(학군#41) 2(27), 김도현(학군#42) 1(36), 김준형(학군#43) 2(26), 김광윤(학군#44) 2(24), 김태홍(학군#48) 2(16), 민병구(학군#48) 2(24), 박성연(학군#50) 1(23), 윤정훈(학군#50) 1(1), 김동진(학군#51) 2(24), 구민수(학군#52) 2(57), 유강민(학군#52) 2(16), 황기영(학군#54) 2(9), 박주오(학사 #7) 2(87), 최재호(학사#29) 2(98), 이준수(학사#35) 2(82), 김영각(학사#49) 2(16), 김효곤(학사#49) 1(1), 김미봉(학사#54) 2(33), 임도현(학사#54) 2(77), 이해지(학사#55) 2(22), 손성용(학사#55) 1(102), 성현애(학사#56) 2(20), 심정현(학사#58) 2(8), 차성복(여군#45) 2(103), 최순조(여군#46) 2(27), 서나현(여군#47) 2(17), 강소영(여군#49) 2(11), 이희정(여군#49) 2(11), 김형태(단기#22) 2(28), 유현성(단기#26) 2(10), 임윤호(단기#27) 1(9), 김세영(단기#28) 1(109), 박승재(단기#30) 2(2), 강찬영(군중#61) 2(4), 김기림(교수#18) 2(10), 신하영(교수#18) 2(10), 양웅석(교수#18) 2(10), 이지성(교수#18) 2(10), 정영진(교수#18) 2(10), 최우혁(교수#18) 2(10), 최윤정(간호#38) 2(13), 김동중(중사) 2(10), 권태원(원사) 2(10), 서동균(중사) 2(4), 이가현(하사) 2(5), 이각우(원사) 2(28), 전경익(원사) 2(42), 김태환(상사) 2(42), 우의택(상사) 2(53), 전원식(상사) 1(9), 진장철(상사) 2(47), 전병열(중사) 2(17), (군무원) 김영건 2(52), 김민수 2(10), 남희경 2(10), 류태운 2(166), 박병준 3(6), 인명주 2(16), 양성우 2(36)

■ 졸업·재학생도 부모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윤종택(38부)10(350), 김영근(42부)2(232), 조경혜(45모)5(666), 백인숙(47모)2(6), 장승일(49부)2(242), 성동모(50부)2(148), 박재석(51부)100(536), 윤운상(51부)2(62), 정경숙(51모)2(63), 김현미(52모)1(19), 양운수(52모)5(15), 이선화(52모)5(485), 이영미(52모)3(211), 정정화(52모)1(313), 박일심(53모)10(70), 조정숙(53모)2(68), 홍성기(53부)2(38), 황경부(53부)20(370), 고흥식(54부)100(100), 김동주(54부)1(1), 김영신(54부)6(60), 박현욱(54부)10(230), 유우근(54부)100(200), 윤영남(54모)5(120), 이기성(54부)6(79), 주옥자(54모)10(160), 홍성은(54부)2(204)

▶ 4학년 학부모

고창희, 김동환, 김상근, 박천규, 박철, 서원수, 양용승, 오선수, 유현규, 윤연희, 이강현, 전근화, 정수태, 정신자, 정영숙, 정원섭, 최남수

▶ 3학년 학부모

신윤영, 신현진, 양동희, 정희숙, 천선희

※ 재학생 학부모 상세 현황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 "충성대앱" 기부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처 ⇒ 사무국 (054) 330-3180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 ▶ 171 김용하 2(102), 남훈조 20(1062), 이기권 1(552), 임관택 2(52), 전수천 1(68), 최익환 2(55)
- ▶ 271 윤경혁 20(480) ▶ 371 김태성 10(130), 한만우 1000(7000)
- ▶ 571 김일순 10(360) ▶ 771 이덕재 1(6)
- ▶ 971 권영호 5(245), 김현기 10(1078), 윤지환 3(57), 최병학 5(1090)
- ▶ 1071 박성규 1(101) ▶ 1471 김중환 1(28), 안호 10(1540), 하병옥 1(342)
- ▶ 1571 김성연 50(296), 정태환 100(500)
- ▶ 1671 이종우 1(131), 황병태 4(262) ▶ 1871 구연덕 2(100), 금용백 6(486)
- ▶ 1971 이경희 1(144), 이종형 2(209), 이창호 6(492), 임종철 2(37), 홍성식 2(170)
- ▶ 2071 김윤희 1(38), 박권순 1(119.4), 서정열 20(365), 조길상 2(36)
- ▶ 2171 신철수 2(578)
- ▶ 2271 권순태 2(24), 이진성 2(232), 정경호 1(16), 조태환 2(108)
- ▶ 2371 김창수 4(184), 김태일 2(201.5), 배요식 2(114), 신영찬 1(43), 오승욱 2(222), 이운재 10(101), 정철재 4(80), 허강수 2(133)
- ▶ 2471 권금락 4(221), 권오봉 1(185), 김도협 2(204), 모경원 2(199), 박재철 2(43), 방성대 2(53), 안언준 1(66), 이민희 2(67), 정정현 2(163), 차경재 2(28)
- ▶ 2571 김남용 1(106), 김대현 1(9), 김민정 2(114), 김희식 2(183), 문봉성 2(124), 서생권 2(38), 이종현 1(23), 이상복 1(8), 장광선 6(294), 전희준 2(277), 조재희 2(95), 홍은표 2(173)
- ▶ 2671 고창준 2(110), 김영성 4(364), 박유옥 1(177), 신승헌 4(143), 신태영 1(85), 유근환 1(6), 이원주 2(73), 이태인 4(6), 임우영 2(216), 장용빈 4(74), 한재우 1(5), 홍순범 2(182)
- ▶ 2771 김덕중 2(40), 김호복 2(172), 석수열 1(18), 안병욱 2(141), 원희문 10(106), 이희순 10(220), 전태환 20(400)
- ▶ 2871 권승영 0.5(115), 권양철 1(80), 김진길 2(52), 박기수 2(63), 박용섭 4(117), 백종국 4(219), 서정수 2(144), 유정일 1(14), 윤석찬 1(112)
- ▶ 2971 김강식 2(217), 김경일 7(7), 김민수 1(8), 김용식 2(46), 박성훈 2(125), 박태용 2(104), 이규주 2(87), 임성호 2(136), 최인섭 2(88), 한태식 2(122)
- ▶ 3071 김중권 2(56), 김호성 2(16), 남진오 2(27), 이진 2(121), 임상달 2(91), 주경호 1(85), 홍성범 2(9), 함인호 2(72)
- ▶ 3171 권동호 4(4), 김민식 4(42), 김명태 1(153), 김희엽 2(198), 염향수 2(108), 이재준 2(182), 이훈복 2(20), 최대집 2(18), 전경민 2(5)
- ▶ 3271 권관덕 6(251), 김화용 2(85), 이태현 2(20), 조원상 2(184)
- ▶ 3371 고희용 2(5), 김남수 2(135), 김상선 2(112), 김성수 2(198), 김진년 1(92), 김현규 4(333), 남석진 1(109), 노일 3(77), 안경일 2(206), 안준영 6(44), 조영진 2(87), 조우철 2(135), 조재봉 2(82)
- ▶ 3471 권성진 2(103), 김기수 2(152), 김운성 2(17), 김홍식 6(351), 신정원 2(38), 이형국 1(38), 임창훈 2(52), 정용민 4(155), 정창근 2(78), 정준환 2(28), 조수창 1(152)
- ▶ 3571 김병수 2(50), 김수열 2(41), 박병준 3(218), 박상우 3(63), 박시근 2(155), 송명성 2(4), 손득준 2(61), 이문희 2(121), 임창규 2(79), 장춘삼 2(16), 전기홍 2(50), 전성광 2(9), 정영석 1(77), 정호준 4(36), 장영아 2(7), 한종훈 4(311)
- ▶ 3671 고미운 2(17), 김강민 2(11), 김현 2(100), 길문수 2(45), 안경무 6(184), 양현성 2(178), 이광희 2(122), 이규호 2(87), 이덕재 1(50), 이호진 1(213), 임종수 2(42), 장세호 2(173), 정우철 2(108), 조동권 1(88), 진연수 2(133)
- ▶ 3771 강성봉 1(139), 김남훈 1(170), 김양훈 6(153), 김지민 2(55), 김총기 2(50), 김홍년 2(204), 노진철 2(118), 송석봉 4(95), 송용섭 4(229), 안홍선 2(208), 옥원호 2(104), 이관모 2(110), 이원형 4(219), 이희석 2(89), 임연준 2(6), 전성진 2(99), 정우진 2(42), 정희철 2(98), 최정호 2(9), 함성규 2(75), 허지웅 2(39)
- ▶ 3871 모윤하 2(199), 문정민 2(88), 문현성 2(201), 서현호 3(202), 서성걸 2(45), 송태영 2(9), 신상운 2(99), 이경식 1(148), 이상복 1(11), 이정용 4(172), 정한옥 1(178), 함기훈 2(56)
- ▶ 3971 강병현 2(183), 김의진 2(97), 김인경 2(49), 김효수 10(10), 박철균 2(52), 송진근 2(52), 송창현 4(24), 심용운 2(54), 이대화 2(183), 이웅렬 1(41), 이종화 2(180), 이준석 2(46), 최현철 2(244)

▲ 40~54기 기부현황은 지면상 개시가 제한되니 발전기금 홈페이지 또는 충성대앱을 이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우수기부자 소식

"나이, 신분, 사는 곳은 모두 달라도 '학교사랑' 그 마음만은 똑같습니다."



① 3기 한만우 1천만원 기부 (총 7천만원)

② 재학생 학부모 박홍식 500만원



15기 정태환 재단이사장

③ 15기 정태환 (주)신기코리아 대표 총 500만원



박재석 재단이사장

④ 51기 졸업생 부친 박재석 500만원



⑤ 재학생 학부모 문희용 500만원



생도대장 공무원

⑥ 재학생 조부 공무원 500만원

육군3사관학교

위풍당당

의기를 드날리며 큰 꿈에 도전하라!

의기양양

큰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뽐내라!

원서접수 : 2019. 4. 22(월) ~ 5. 31(금) • 접수 : 인터넷(www.univapply.co.kr) • 문의 : www.kaay.mil.kr 054)330-3701, 3702, 3710, 3711, 3720

2020학년도

정시생도 57기

• 학력 :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연령 : '95. 3. 1 ~ '01. 2. 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2021학년도

예비생도 58기

• 학력 :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 연령 : '96. 3. 1 ~ '02. 2. 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